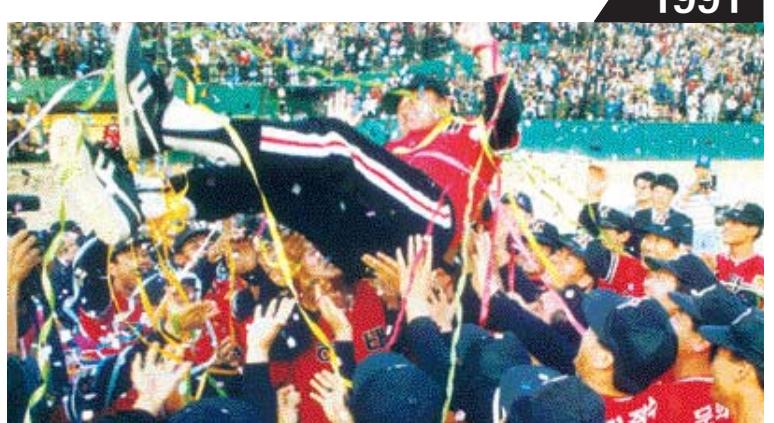


되돌아본 타이거즈 V9 영광의 순간들



호남인 긍지 높인 감동의 명승부들... 올한 꼭 V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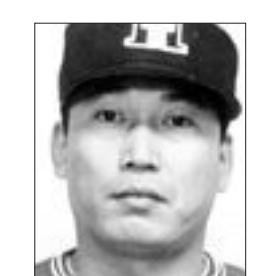
KIA 타이거즈는 프로야구 출범 다음해인 1983년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동시에 차지했다. 이후 1986(후기 우승)·1988(전·후기 우승)·1991·1993·1996·1997년에도 정규시즌 1위와 한국시리즈에 안착한 뒤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공식을 썼다. 정규시즌을 2위로 마감했던 1987년과 1989년에도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라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프로야구 최다 우승 기록인 'V9'를 달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ju.co.kr

/사진=광주일보 DB

V1

◇1983년
김봉연과 김상한의 불방망이를 앞세워 시즌 1위를 달궜던 타이거즈는 1차전부터 삼대팀 MBC를 거제게 물어 봤다. 7-4로 1차전을 낸 타이거즈는 타선의 활약으로 2회승을 달리 나와로 5타점을 기록한 김봉연은 앞세워 3차전까지 승리를 장식했다. 하지만 당시 신동수, 문희수, 김정수를 앞세워 3점승을 달린 타이거즈는 접심구장에서 벌어진 5차전에서 선동열의 완벽구원역투와 김성한·백인호·박철우의 다이나미트 타선의 활약 속에 5-1로 4연체 승리를 차지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MVP 김봉연
이해 여름 투사고를 당했던 김봉연은 콧 수염으로 상처를 가지고 재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 결실은 팀의 첫 한국시리즈 MVP로 돌아왔다. 김봉연은 3차전 3점 홈런을 포함한 한국시리즈에서 19타수 9득점 3점승을 기록했다.

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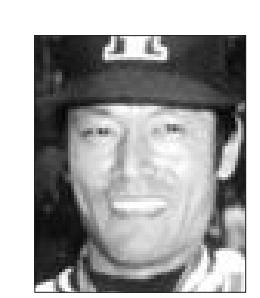
◇1986년
삼성과의 1차전, 1-3으로 뒤집어진 9회말 타이거즈의 균형이 밟혔다. 김일관의 적시타와 김상한의 밀어내기 투수로 몰고간 타이거즈는 11회말 터진 김상한의 골대기 안타로 승리를 거뒀다. 2차전 1-21점차 패배를 당했던 타이거즈는 3차전 강효조·이만수를 앞세운 삼성과 타격 대결경에 6-5로 2승째를 기록, 4차전 11회 연장 승부에서 승리한 타이거즈는 5차전 가을에 5-2의 승리로 달성을 달성했다.



MVP 김정수
신인 김정수는 1, 3, 5차전에서 3승을 수확하며 당당히 한국시리즈 MVP에 등극했다. 테비 첫 해 가을전에서 3승을 신인한 김정수는 한국시리즈 7승을 거두며 가을까지라는 애칭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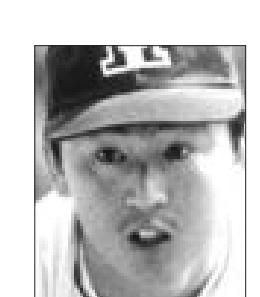
◇1987년
정규시즌을 2위로 마감한 타이거즈는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1차전을 가졌다. '제간동이' 이순철이 불빛과 도보로 기선제압에 나섰다. 삼대의 실수까지 유도하며 1회초 3점을 뽑으며 5-3으로 승리한 타이거즈는 김정수와 선동열로 이어진 마운드의 힘으로 2연승을 달렸다. 김준환의 결승 솔로홈런으로 3연승을 기록한 타이거즈는 4차전에서 김대현과 김정수의 후반과 14개의 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힘으로 4경기 만에 한국시리즈를 마감했다.



MVP 김준환
김준환의 맹예회복 무대였다. 정규시즌에서 0.204의 타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김준환은 12타수 6안타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했다. 3·4차전에서 연속해서 홈런을 쏘이ulin 활약으로 MVP를 품에 안았다.

V4

◇1988년
빙그레와의 1차전은 선동열과 이동석의 맷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시즌 맞대결에서는 타선적이 노히트노런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날은 솔로포를 터트려 승리를 견인했다. 2차전 6-5의 신승을 거둔 타이거즈는 3차전에서 흔들린 애마운드를 저지한 문희수와 활약으로 3-4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우승을 노았던 타이거즈는 2연패에 빠지며 6차전까지 승부를 벌였다. 3차전을 주도했던 문희수가 6차전 완투승으로 팀의 3연패를 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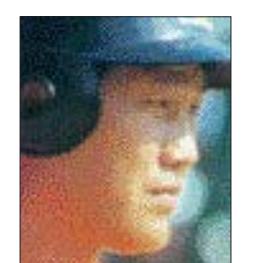


MVP 문희수
정규시즌에서 선동열, 이상윤, 이동철이 두 자릿수 승을 기록한 이문희수는 8승에 머물렀지만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선동열에 이어 등판해 세이브를 거둔 뒤 3, 5·6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MVP에 올라 이하 가을스타가 됐다.



V5

◇1989년
빙그레와 최종 무대에서 맛볼은 타이거즈는 1차전에 선동열을 내세웠지만 1회말 이강준의 홈런에 기선을 뺏겼다. 타자들도 이상민·진승진·한희민의 공세에 무너지면서 1차전은 0-4 우승패로 막혔다. 하지만 신동수, 문희수, 김정수를 앞세워 3점승을 달린 타이거즈는 접심구장에서 벌어진 5차전에서 선동열의 완벽구원역투와 김성한·백인호·박철우의 다이나미트 타선의 활약 속에 5-1로 4연체 승리를 차지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MVP 박철우
1989년 데뷔 3년시즌만에 3할 타율을 기록했던 좌타자 박철우는 한국시리즈에서도 4번 타자로 나서 18타수 8안타의 맹타를 기록하며 MVP의 영예를 안았다. 박철우는 한국시리즈 MVP에 이어 골든글로브를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V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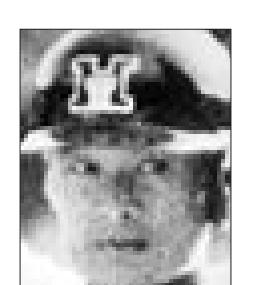
◇1991년
여전과 역전, 타이거즈의 저력을 과시한 맛진 승부였다. 1989년에 이어 2년 만에 남은 빙그레와의 맞대결에서 다시 한번 선동열이 1차전 선발로 나섰다. 2회초 김정길의 솔로 홈런으로 빙그레가 선취점을 뽑았지만 한대희의 역전 투런홈런이 터졌다. 타선 지원을 받은 선동열은 9회초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승리투수가 됐다. 이후 타이거즈는 4개전에서 모두 선취점을 내줬지만 뒤집기쇼를 벌이며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를 마무리 했다.



MVP 정창근
팀의 안방인 도달에 정규시즌 1위를 이끌었던 장재근은 한국시리즈에서 15타수 79타 8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특히 4-5회 뒤 자신은 4차전, 9회초에 동점타를 터트린 장재근은 짜릿한 역전타의 발판을 마련하며 한국시리즈 MVP를 거머쥐었다.

V7

◇1993년
1993년 10월 26일 '무등산 폭격' 선동열이 삼성의 강타자 이만수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타이거즈의 7번의 우승이 완성됐다. 이어 2년 만에 남은 빙그레와의 맞대결에서 1차전 선발이 1차전 선발로 나왔다. 2회초 김정길의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받은 선동열은 9회초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승리투수가 됐다. 이후 타이거즈는 4개전에서 모두 선취점을 내줬지만 뒤집기쇼를 벌이며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를 마무리 했다.



MVP 이종범
특급 신인 이종범은 29타수 9안타 4타점 7도루로 데뷔 첫해 한국시리즈 MVP의 영예를 안으며 프로야구 역사에 새겨졌다. 마지막 7차전은 이종범의 무대였다. 첫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던 이종범은 두 번째 타석에서 11회연속에 이어 도루를 성공시키며 상대를 뒤틀었다.

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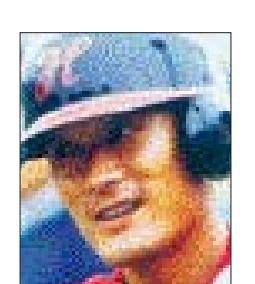
◇1996년
태평양에서 현대로 제단생한 신에 팀과 관계의 타이거즈의 대결이었다. 타이거즈는 이대진의 호투로 한국시리즈를 출발했다. 조계희나 나선 2차전 타선의 침묵으로 연장 11회 승부에서 1-2로 패한 타이거즈는 3차전 이종범의 완봉승으로 현대를 제압했다. 하지만 4차전 현대 선발 정명현에게 노히트 노루를 당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2승2패로 맞선 5차전 경기 부수들을 총부 입하며 5-2의 승리로 8연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MVP 이강철
3차전 완봉승으로 마운드를 험현한 언더 부수 이강철은 마지막 승부가 된 6차전에서 다시 선발로 출전해 5-2 경분의 이닝을 1실점으로 끝내고 팀의 우승의 발판을 마련하며 팀의 8연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V9

◇1997년
1997년 10월 24일 이대진이 마운드를 지켰고, 이종범은 4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로 삼성대 10을 뒤집어 1차전 6-1의 승리를 이끌었다. 2차전 1-10 대패를 당했던 3차전 이종범은 두루마의 홈런을 터뜨리며 5-1 승리의 주역이 됐다. 흥한우·김창희·김종국과 훌륭소로 4차전 승리를 장식한 타이거즈는 5차전 '영원한 애기 호랑이' 김상진의 완투를 발판 삼아 팀의 9연체 우승 역사를 썼다. 당시 20살이었던 김상진은 한국시리즈 회연소 완투승의 기록을 썼다.



MVP 이종범
모든 승리는 이종범이 있었다. 시리즈 내내 품타자로 팀의 꽃을 이룬 이종범은 3차전 연타석 홈런을 쏘이울리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승을 훤기 이대진과 경쟁 끝에 9연체 이어 두 번째로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했다.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

★ 제주 골프 특선 ★

한서파(精英社) 미포로 고급형 + 해변파	*189,000원
라운드 투어(34홀) + 세인트제임스	*299,000원
제주 골프 2인1실 + 펜션CC	*309,000원

고객 사은 체주도 패키지 여행 2박3일

몰래길 + 신제주 관광명소	
•근공호텔2인실	*199,000원
•특급호텔2인실	*259,000원

*2박3일 출발 예정 일정은 본문 참조

제주여행(주) 홈페이지: www.greenlynir.com

주주대리점 (주)투어클럽 040-382-5201

교보생명보험 스피드골프 010-3613-7810

합평다이너스티CC 국화 Festival!!